

# 시대와 함께 하는 公論誌로

## — 통권 50호를 맞는 감회와 다짐

鄭鎮肅

한국출판금고 이사장 · 「출판저널」 발행인

圖書文化의 확장과 충실화를 위한 公論誌가 될 것을 다짐하며 「출판저널」이 창간된지 벌써 50호를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50호 발간이라는 한 매듭에 서서 우리는 이를 대견스럽게 여기기는 합니다만, 큰 소리를 내어 자랑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보다는 지난날을 뒤돌아보고 自省하면서 앞으로 한국 출판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는 공론지로서의 사명을 더욱 성실하게 수행할 다짐을 가다듬고자 합니다.

우리는 창간에 즈음하여 네가지 편집방침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 첫째는 출판정보誌로서의 기능을 다하겠다는 것이었으며, 둘째는 본격적인 書評誌의 구실을 하겠다는 것, 셋째는 도서관문화의 확장과 충실화에 기여하는 교양지가 되겠다는 것, 넷째는 합리적 출판경영방법이나 새 기술을 소개하는 안내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편집방침이 그동안 얼마만큼 열매를 거두었는지를 반성할 때 미진한 점이 적지 않아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은 자랑스럽게 自負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모지와도 같았던 메마른 땅을 열심히 일구어 씨앗을 뿌려왔다는 점, 그리고 이제 그 씨앗이 돋기 시작하였고 우리는 이를 喬木으로 가꾸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험준한 천리길도 착실한 한 걸음 한 걸음을 중단하지 않고 내디딜 때 비로소 정복되는 것입니다. 지금 「출판저널」은 시작이 반인 중요한 발걸음을 착실히 내디디 왔고, 첫번째 매듭이라고 할 수 있는 50호 발간의 작은 오르막길에 당도하여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국가발전의 긴 안목에서 우리 출판계가 놓여 있는 좌표를 냉철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인식의 바탕 위에서 우리 출판계가 연구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방향을 뚜렷하게 설정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최근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던 몇가지 중요한 변화와 사건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련의 개방정책과 동구권의 자유화 물결은 마침내 脫이데올로기의 새로운 국제 질서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이어 헝가리에서는 공산당 일당체제가 무너지고 우리나라와의 다방면에 걸친 교류가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출판인들은 史上 처음으로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도서박람회에 참가하였고, 우리 도서가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의 수도에 자랑스럽게 전시되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소련이나 중국에 사는 재외동포가 잇달아 서울을 방문하는가 하면, 북한과의 교류가 활성화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념대립의 논리나 분단의 고정관념은 이미 시대의 폐물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할 때 우리 출판계가 앞으로 연구하고 타개해나가야 할 방향은 대외적으로는 소위 공산권 국가와의 출판교류를 확대시켜나가는 한편 이들 국가에 사는 재외동포에게 우리의 도서를 보급하는 일이며, 대내적으로는 출판을 통해 민족의 異質化를 극복함으로써 통일에 대비하는 출판문화의 방향을 설정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다양성있게 제기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선도하고 이끌어나가는 역할을 가장 슬기롭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출판저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판저널」은 창간 때 천명하였던 네가지 역할과 함께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문제의 제기와 연구에도 꾸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출판저널」을 아껴주신 애독자 여러분과 출판인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보다 알찬 「출판저널」이 되도록 배전의 지도편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권두 논문 2 80년대 출판 어떻게 볼 것인가 / 李重漢  
— 사회적 의미와 문화적 의미

좌담 4 “출판역량 성숙했으나 고른 발전이 과제”  
— 1980년대의 사회변동과 출판의 좌표를 점검한다  
김형윤/장석주/정홍채/조상호/이중한

특집 I 8 출판저널이 뽑은 ‘1980년대의 책’ 242권

선정경위/추천해주신 분들

9 한국의 역사

12 전통문화

15 역사학 일반

15 사회와 사상

18 문학

23 예술

24 문화 일반

24 과학

26 교양·철학

28 베스트셀러

30 ‘1980년대의 책’ 추천도서 목록

특집 II 32 갈목할 양적 팽창 못따른 內實  
— 통계로 본 1980년대의 출판

특집 III 34 이념도서 해금에서 ‘출판타운’까지  
— 토픽으로 보는 1980년대의 출판계

출판화제 37 80년대 ‘북디자인’의 현단계

38 신간목록

47 일간지 출판기사 색인

프리즘 48 東京 나들이 四題 / 이경훈

48 독서퀴즈 정기구독 안내